[기상학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A%B8%B0%EC%83%81%ED%95%99" \o "기상학)에서는 기온 변화에 따라 계절을 구분한다. 대한민국 기상청은 여름의 시작을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로 정의하며, 나흘 전부터 나흘 후까지 9일 동안의 평균 기온이 이틀 연속 유지될 때를 기준으로 한다.[[3]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97%AC%EB%A6%84#cite_note-3) 이는 다음과 같이 더 세분화한다.[[4]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97%AC%EB%A6%84#cite_note-4)

* 초여름 : 일평균기온이 20℃∼25℃이고 일최고기온이 25℃ 이상
* [장마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9E%A5%EB%A7%88) : 일평균기온이 20℃∼25℃이고 일최고기온이 25℃ 이상이며 강수량이 집중
* 한여름 : 일평균기온이 25℃ 이상이고 일최고기온이 30℃ 이상
* 늦여름 : 일평균기온이 20℃∼25℃이고 일최고기온이 25℃ 이상

기상학적으로는 ‘일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가 9일 동안 유지될 때 그 첫날’을 가을의 시작이라고 한다  
  
[출처]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

기상학적으로 가을의 기준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해 9일간 지속하는 첫 번째 날을 가을의 시작으로 본다

[기상학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A%B8%B0%EC%83%81%ED%95%99)에서는 기온 변화에 따라 계절을 구분한다. 일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 9일간 유지될 때, 그 첫 번째 날을 가을의 시작일로 정의한다.

우리나라 기상학계 계절기준은 이병설 박사(1976 우리나라 자연계절에 따른 연구)의 분류에 따랐습니다.  
  
출처: <https://dschci.tistory.com/42> [IT 회사에서 즐겁게 지내기!]

1910년대 전국 평균 여름지속일수는 95일이었지만, 1950년대는 101일, 1970년대는 105일이었고, 1990년대는 113일, 2000년대는 121일, 2010년대는 129일까지 늘어났는데요. 1910년대와 비교한다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여름이 길어진 셈입니다.

* 관련링크

<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kma_131&logNo=220040955403&proxyReferer=https:%2F%2Fwww.google.com%2F>

<https://m.blog.naver.com/kma_131/221526838614>

<http://www.kr-weathernews.com/topics/202005/050752/index.html>

<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190510_0000647204>

<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923212882>